

보도시점 (전매체) 11. 8.(수) 14:00

한-불 협력으로 세계(글로벌) 코스메틱 시장 선도

- 세계 최대 화장품 협력지구(클러스터), 프랑스의 '코스메틱 밸리'와 협약 체결
- ①한-불 양국 화장품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공동 기획,
②신소재를 활용 신제품 개발과 공정혁신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R&D),
③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교육훈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8일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마크-앙투완 자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 밸리 이사장(LVMH그룹 사무총장)과 코스메틱 분야의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코스메틱 밸리는 1994년 설립된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미용(뷰티) 분야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엘브이엠에이치(LVMH), 로레알, 켈랑 등 세계(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등 100여개의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대학과 연구소 8,600명의 연구자들이 화장품 원재료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화장품 관련 전 분야의 연구개발과 연계망(네트워크)을 운영하고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한-불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해 자국의 유통 플랫폼과의 상호 협업 등 프로그램 공동 운영
- ② 신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화장품 생산에 적합한 다품종·소량생산 공정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 ③ 국내 화장품, 향수 등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프랑스 현지의 교육훈련
- ④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세계(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이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코스메틱 벨리 간 협력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기술 강국인 한국과 프랑스의 코스메틱 분야 협력을 강화해 양국 기업이 세계(글로벌) 미용(뷰티) 산업을 주도한다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가 개최됐다.

크리스토프 마송 코스메틱 벨리 최고경영자(CEO)는 코스메틱 벨리가 주도하는 프랑스 화장품 혁신 생태계를 소개하고, 유양희 엘로엘 대표는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미용(뷰티)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소냐 샤이에브 한불상공회의소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간 화장품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아이디어)이 제시됐다.

이영 장관은 “화장품 산업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원료, 제품개발, 포장, 공정, 마케팅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공급망(밸류체인)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산업”이라며,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미용(뷰티) 분야 협력은 사업적 성과 창출을 넘어 양국 국민들의 상호이해 증진과 문화교류 확대까지 이어져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담당자	사무관	장희수 (044-204-7193)



□ 주요내용

- ①한불 양국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공동 기획, ② 제품과 공정혁신을 위한 공동 R&D 및 ③코스메틱 분야 인력 교육 훈련 등

① 세계(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공동 기획

- 유통 플랫폼 상호 협업(예 : 한국 - 쿠팡, 프랑스-Sephora, Nocibe, Marionnaud 등)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의 화장품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제품 및 공정혁신을 위한 공동 R&D

- 햄프 등 신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한국 중소기업의 프랑스 내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 활용을 통한 협력방안 연구

③ 코스메틱 분야 인력 교육훈련

- 양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프랑스 및 한국 현지 교육 지원

□ 향후계획

- 공동 R&D 주제 선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정 등 구체적인 협력 계획 수립